

OReport

[지자체 이름]

후쿠시마현 가가미이시정(福島県鏡石町)

[제목]

진화하는 가가미이시 실행 프로젝트 ‘논에서 아트다!’ 부흥 교류 사업

[사업 결정 배경, 이유]

당초 정(町)의 시책 ‘역에서 내려보고 싶다, 걸어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마을 만들기’의 메인 사업으로서 2011 년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2011 년 3 월 11 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논 의 수원이 되는 하토리댐(羽鳥湖ダム)의 파이프라인이 파손되어 논 아트를 포함해 정(町)의 논 약 80%가 경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년 후 파이프라인의 복구와 포장(圃場) 제염을 실시하여, 2012 년도부터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과 원전 사고의 ‘소문 불식’, ‘지역생산·지역소비(地産地消)’와 ‘6 차 산업’ 등 다면적인 전개를 지향하며 출범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가가미이시정은 후쿠시마현 나카도리(中通り)의 중앙 남부에 위치하며, 도호쿠 종관 자동차도와 국도 4 호선 등의 간선도로, JR 도호쿠혼선이 지나 교통의 편리성이 높으며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좋은 기후 풍토와 평탄한 경지가 펼쳐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예부터 지역민들은 벼, 채소, 과일, 축산 등을 하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정(町) 내에는 일본의 근대 낙농 발상지로 여겨지는 ‘이와세 목장’(岩瀬牧場)을 비롯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스포츠 레저 시설 등이 있으며 쾌적한 전원 도시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 속에서 ‘논 아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 보급 계발과 역(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과 농업이 연계한 ‘복행(福幸, 부흥)의 상징’으로서 사업 전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관광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모내기, 벼 베기 등의 농사 체험을 통해 아이들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가가미이시정의 주요 작물인 ‘맛있는 쌀’의 PR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물감 대신 색이 다른 벼를 이용하여 논을 1 장의 캔버스처럼 보이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논 아트’. 논 아트는 가가미이시정의 지역성을 활용하여 JR 도호쿠혼선 가가미이시역 동쪽으로 펼쳐지며, 가가미이시정 도서관 4 층에서 바라보는 ‘창문에서

바라보는 그림책~또 하나의 도서관~'을 컨셉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아는 동요와 동화를 테마(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림책 시리즈)로 그리고 있습니다.

- ①파종, 육묘, 도안의 측량 작업...후쿠시마현 이와세 농업고등학교 실습 수업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
- ②농업 체험 행사 ①...풍년 기원 모심기 축제(5월 하순:참가자 약 200~300명)
- ③일반 관람...6월부터 10월 중순 경까지(절정 시기: 7월~8월)
- ④논 카페...가장 절정의 시기(7월 중순~8월 중순)에 맞춰 도서관 부지 내에 푸드트럭 배치를 하고 오픈 카페의 분위기를 자아내, 가가미이시정의 PR 활동과 특산물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⑤농업 체험 행사 ②...풍작 만세! 벼 베기 축제(10월 중순: 참가자 약 200~300명)
그림 배경인 녹색 부분의 식미용 벼(후쿠시마현 오리지널 쌀:덴노 쓰부(天のつぶ, 하늘의 낱알))
- ⑥3D 논 아트 완성...그림 부분만 남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관람)
- ⑦수확한 쌀의 활용 ①...논 아트 쌀(햅쌀)을 정립(町立) 초·중학교의 급식으로 제공합니다.
- ⑧수확한 쌀의 활용 ②...햅쌀을 쌀가루로 가공하여 논 아트 쌀가루 빵과 경단 등 6차 상품(산업)으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⑨반짝반짝 아트...그림과 어우러진 논 아트 LED 일루미네이션을 201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1월 말 16:30~18:45까지)

[특징, 선진성]

- ①포장(圃場) 면적: 약 50a / 그림 면적: 약 33a(도서관 지붕에서 아래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 ②사용 중인 벼: 7종류(검정, 노랑, 빨강, 흰색, 주홍, 녹색, 짙은 녹색)
- ③가가미이시정 도서관 4층에서 바라보기 딱 좋게 원근법을 활용하여 도안을 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④'보는' 논 아트'에서 '걷는' 논 아트', 그리고 '먹는' 논 아트'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거리를 '걸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등으로 논 아트를 계기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⑤2016년도부터 '빛나는' 논 아트'로 더욱 진화했습니다. 조명 기구에는 정 내 초·중학교와 현립 고등학교 아이들의 '메시지 카드'가 들어있으며 '희망의 모종'으로서 모내기(설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⑥동경의 채소 소믈리에들과 취지에 찬동하는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으로

구성된 ‘팀 후쿠시마’의 후쿠시마 응원 프로젝트 ‘VEGEFULL(vegetable+ fruits, 채소와 과일) 캠퍼스’ 사업. 논 아트와의 관계를 메인으로 한 농업 체험과 홈스테이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렴’을 슬로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

6 월부터 11 월까지의 논 아트 관람자 수
2012 년도 ‘목장 풍경’ 5,613 명(현외 296 명 5.3%)
2013 년도 ‘모모타로(桃太郎)’ 13,092 명(현외 887 명 6.8%)
2014 년도 ‘긴타로(金太郎)’ 16,943 명(현외 1,299 명 7.7%)
2015 년 ‘우라시마 타로(浦島太郎)’ 20,924 명(현외 1,832 명 8.8%)
2016 년도 ‘가구야 히메(かぐや姫)’ 22,436 명(현외 2,552 명 11.4%)

[과제, 문제점과 대응]

- ①작업 인원의 확보…논 아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도안 측량과 모내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②기상 상황으로 인한 영향…여름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가을에는 장마, 직접적인 피해 등은 없지만 많은 태풍이 발생하는 등 농업의 관점에서는 작업 공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천의 경우 관람자 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날씨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전개(기대 효과와 사업 전망, 과제 등)]

가가미이시정은 2017 년도는 정제시행(町制施行) 55 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기 위해 논 아트의 면적을 확대하고 기념 사업으로서 화제성과 획기적인 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 아트를 계기로 기타 다른 소프트 사업으로의 파급 효과와 한층 더 많은 교류 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URL]

가가미이시정 H P : <http://www.town.kagamiishi.fukushima.jp/>
가가미이시정 Facebook: <http://www.facebook.com/kagamiishimachi>
가가미이시정 관광협회 H P : <http://www.kagamiishi-kanko.jp/>
가가미이시정 관광협회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agamiishi.kanko/>

[소관 연락처]

담당소속: 가가미이시정 산업과 진흥그룹
전화 번호: 0248-62-2118
메일: sangyo@town.kagamiishi.lg.jp

[사용한 전문 용어, 조어의 의미]

•복행(福幸) ⇒ 후쿠시마현(‘福’島県)이 행복(‘幸’福)하게 되도록.

•“보는’ 논 아트’ ⇒ 논 아트 자체를 의미합니다.

•“걷는’ 논 아트’ ⇒ ‘역에서 내려보고 싶다, 걸어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마을 만들기’에서 논 아트를 보여주기 위한 각종 워킹 이벤트 제휴(현·정·J R) 등

•“먹는’ 논 아트’ ⇒ 그림의 배경부분이 되는 녹색 벼는 ‘후쿠시마현 오리지널 쌀 텐노쓰부(하늘의 낱알)’이라는 품종. 지역생산·지역소비(地産地消)로서 학교 급식 등으로 사용됩니다. 쌀가루를 가공하여 ‘논 아트’의 부가가치를 붙인 쌀가루 빵과 경단 등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진】



2015 논 아트 "우라시마타로"



반짝반짝 아트



풍년 기원 모심기 축제



드론 촬영



도안 측량

○Summary

[상황(배경, 목적 등)]

정의 시책 ‘역에서 내려보고 싶다, 걸어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마을 만들기’의 메인 사업으로서 2012 년도부터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과 원전 사고의 ‘소문 불식’, ‘지역생산·지역소비(地産地消)’와 ‘6 차 산업’ 등 다면적인 전개를 지향하며 출범하였습니다.

[내용(사업 개요 등)]

물감 대신 색이 다른 벼를 이용하여 논을 1 장의 캔버스처럼 보이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논 아트’. 논 아트는 가가미이시정의 지역성을 활용하여 JR 도호쿠혼선 가가미이시역 동쪽에 펼쳐지며, 가가미이시정 도서관 4 층에서 바라보는 ‘창문에서 바라보는 그림책~또 하나의 도서관~’을 컨셉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아는 동요와 동화를 테마(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림책 시리즈)로 그리고 있습니다.

[효과(특징, 선진성, 향후 전개 등)]

- 사용 중인 벼: 7 종류(검정, 노랑, 빨강, 흰색, 주홍, 녹색, 짙은 녹색)
- 가가미이시정 도서관 4 층에서 바라보기 딱 좋게 원근법을 활용하여 도안을 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 2012 년도(첫회) 관람자 수는 5,613 명으로, 2016 년도에는 22,436 명으로 늘어나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적을 확대시켜 더욱 교류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